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4. 29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- 美, 우크라이나 지원 무기 테러세력 유출 우려
 - 4.19 CNN은 美 군사·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,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대전차 무기 등의 이동 및 사용에 대한 추적이 불가해 자칫 테러 단체로 대거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
 - * 운반과 은닉이 용이한 대전차 미사일 등이 특히 취약하며, 전문가들은 과거에도 미군이 지원한 무기가 알카에다 등으로 유출된 바 있다고 설명
- 美, 드론 대응 능력 강화 추진
 - 4.25 백악관은 드론의 불법적 사용에 대응하기 위해, △추적·감시 기관 확대 △정부 공인 탐지장치 목록화 △국가훈련센터 설치 등의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의회 측에 입법을 촉구
 - * 미국내 등록 드론은 80만대이며, '24년도에 20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

아·태평양

- 파키스탄, 카라치市 중국인 겨냥 폭탄테러 발생
 - 4.26 언론은 파키스탄 카라치대학교에서 부르카(이슬람 전통의상)를 착용한 여성이 중국인 탑승 차량에 접근해 자살폭탄테러를 자행, 중국인 3명과 파키스탄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
 - * 발로치스탄해방군(BLA)은 여성대원에 의한 최초의 자살폭탄테러라며 배후를 자처
- 경찰대, '22년 대테러 고위급 국제심포지엄' 개최
 - 4.20 경찰대학은 일산 킨텍스에서 국가보안학회·한미공동재단·UN 대테러사무국(UNOCT)과 '22년 대테러 고위급 국제심포지엄'을 개최, 新기술을 악용한 테러위협과 대테러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
 - * 同 행사는 △테러 자금 추적·차단 △드론 테러 △사이버 테러 3개 세션으로 진행

○ 국토부, 韓-美 항공기·공항테러 방지 공동의향서 체결

- 4.24 국토교통부는 '제10차 韓-美 항공보안 협력회의'(4.21~22)에서 美 교통보안청과 항공기·공항테러 방지를 위한 공동의향서를 체결, △항공보안 현안 조율 △상호 직원파견 등 협력강화 추진
- * 이에 따라, 양국은 △주요공항 합동평가 △항공보안 체계 상호 인정을 위한 국내공항 현장 방문 △아태지역 항공보안 협력 강화도 함께 추진 예정

중 동

○ 이스라엘, 가자지구發 로켓공격 보복 공습 실시

- 4.21 AP통신은 4.20 가자지구에서 발사된 로켓이 이스라엘 남부 민가에 떨어지자 이스라엘이 同 공격을 팔레스타인 하마스 소행으로 간주, 두 차례에 걸쳐 가자지구內 하마스 군사시설을 공습했다고 보도
- * 18일에도 로켓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있었으며 15일, 17일에는 알아크사 사원에서의 총돌로 170명이 부상당하는 등 이-팔 간 갈등 과열

아프리카

○ 에티오피아, 東아프리카 軍정보기관 대테러 포럼 개최

- 4.20 에티오피아 국방부는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東아프리카지역 軍정보기관과 포럼*을 개최,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 제거 및 대테러 활동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발표
- * 에티오피아·지부티·수단 등 7개국 軍정보기관 대표 참석

○ 수단, 아랍계 부족의 비아랍계 공격으로 다수 인명피해 발생

- 4.24 AP통신은 수단 서다르푸르州에서 아랍 유목민 출신 「잔 자위드」 민병대 등 아랍계 부족세력이 非아랍계 소수 부족 마을을 습격, 최소 168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다고 보도
- * 同 지역에서는 '03년부터 수단 정부의 지원을 받는 「잔 자위드」 민병대와 소수 부족 반군간 내전이 지속되고 있으며, 최근 군부 쿠데타로 인해 총돌 격화

이라크, 바그다드 시아파 밀집지역 연쇄 차량 폭탄테러

- 2010. 4. 23(금)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시아파 밀집 지역의 모스크, 시장, 상점 등지에서 연쇄 차량 폭탄테러로 72명 사망·120여명 부상
 - * 총 5대의 차량·오토바이에서 약 13번의 폭발 발생
- 테러공격은 대부분 금요일예배 시간중 시아파 모스크 인근에서 발생했으며, '10.3월 총선 이후 테러 중 최대 사상자 발생
 - * 시아파 성직자로 반미·반정부 활동을 주도중인 'Muqtada al-Sadr'의 사무실 인근에서도 폭발이 발생해 추종자 다수가 사망
- 이런 가운데, 「누리 알 말리키」 이라크 총리는 “사건의 배후는 자국내 알 카에다”라고 언급
 - * 이라크 정부는 그 근거로 同 사건 5일전 자국군이 미군과 합동 작전을 전개해 알카에다 간부 2명을 사살했던 점을 제시
- 한편, 외신은 ‘이번 테러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없으나, 이라크의 정세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불순세력이 수니파와 시아파 간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’고 보도

< 수니파와 시아파 >

- (이슬람교) 전세계 이슬람교도는 약 16억~20억명으로 세계 2대 종교중 하나이며, 수니파와 시아파 양대 종파*로 구분
 - * 예언자 무함마드 死後, 이슬람 공동체 지도자(칼리프) 계승 문제로 분파
 - 수니파 : 공동체 합의로 칼리프를 선출
 - 시아파 : 무함마드의 혈연적 후손만을 칼리프로 인정하며 신성 부여
- (갈등계기) 661년 무함마드의 사위인 4대 칼리프 「알리」가 우마이야 가문에게 암살당하고 우마이야 세습체제로 이어가자, 「알리」의 아들 「후세인」이 저항하다 680년 이라크 카르발라 지역에서 참혹하게 살해되며 본격적인 갈등 시현
- (세력분포) 전체 이슬람교도 중 수니파 85%, 시아파 15% 수준이며, 수니파는 사우디·요르단·리비아·파키스탄·아프간 등, 시아파는 이란·이라크 등에서 우세
 - * ISIS·보코하람·알카에다 등은 과격 수니파 테러단체 / 헤즈볼라는 과격 시아파 테러단체